

건학 100주년 기념 비전선포식

‘동국의 울림’ 그 힘찬 첫걸음



건학 100주년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세계로 나가기 위한 우리학교의 장기적 마스터플랜이 오는 23일 '비전선포식'을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비전 선포식은 오후 6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신라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꿈을 이루는’ 이상적인 도전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국의 울림’ 비전 선포식은 △1부=7시~7시 40분 비전 선포식 △2부=7시 40분~9시 30분 만찬 및 축하공연의 순서로 진행되며 외부 초청인사, 동문 등 500명 내외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용 MBC 아나운서, 텔런트 김소연이 진행하는 1부는 흥기삼 총장(국어국문학)의 비전선포로 시작해 동국의 미래를 약속하는 ‘100주년 비전’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이사장 현해스님의 치사 △류주형 총동창회장 축하 △사회자명인사 영상메세지 상영 순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영상메세지를 보내는 사회자명인사는 조계종 종정 예하 법전 큰스님, 동국 예교 포럼 공동 대표인 고건 전 국무총

리, 이명박 서울 시장, 김진선 강원도 지사, 김희옥 법무차관 등이다. 만찬 후 2부에서는 개그맨 이경규와 이경실이 사회로 축하와 공연이 이어진다. 한편 1부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100주년 비전’에는 우리학교가 육성하고자 하는 인재상과 그러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비롯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100주년 비전은 마스터플랜위원회에서 8개월간의 연구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다. 현재 마스터플랜위원회는 기존의 교수중심 연구 위원회에서 실무진 중심 체제로 전환해 마스터플랜의 실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경민 기자 nanakm@dongguk.edu



막판 유세전 '후끈' ...

내일(22일)부터 3일간 열릴 제 38대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기호 1번 '정성전·유영진' 조와 기호 2번 '유민지·구분훈' 조의 마지막 선거 유세전이 활발하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등록금 동결 찬성·100주년 준비 입장 차

총학 후보자 공동정책토론회 열려 ... 선거 22일

38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정성전·유영진, 유민지·구분훈 후보는 등록금 동결을 찬성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입장을 보였지만, 등록금 문제 해결방식과 건학 100주년 준비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두 후보 간의 의견차는 지난 15일 문화관에서 열린 제38대 총학생회 후보자 공동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확인됐다. 토론회는 오원기(북한학 석사 과정) 일반대학원 재학생회장의 사회로 '동국 100주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와 '교육환경개선정책'을 주제로 열렸다.

이미지 향상을 위해 대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대학가야제 유치와 동국영화제 개최를 제시했다. 이에 반해 유민지·구분훈 후보는 건학 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학교가 현재 건학 100주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6년제 등록금 인상 △교비환수 부실 △학생회와 학생간 의사소통단절 등을 지적했고, 학생이 주인이 되는 건학 100주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은 유 후보 측이 건학 100주년 사업으로 내세운 '통일 유랑단'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유 후보 측은 학생들을 위해 무엇이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다 학생들이 북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통일 유랑단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환경개선정책 = 교육환경 개선 정책에 관한 토론 중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등록금 인상문제'였다. 두 후보는 등록금 문제 해결 방식에 관해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정 후보 측은 '원탁테이블'을 통해 등록금 인상 문제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안건으로 학교와 대화를 나눔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동국 100주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정성전·유영진 후보는 그동안 건학 100주년에 대해 무관심했던 학내 분위기를 전환하고, 학교

정 후보 측은 유 후보 측이 건학 100주년 사업으로 내세운 '통일 유랑단'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유 후보 측은 학생들을 위해 무엇이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다 학생들이 북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통일 유랑단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환경개선정책 = 교육환경 개선 정책에 관한 토론 중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등록금 인상문제'였다. 두 후보는 등록금 문제 해결 방식에 관해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정 후보 측은 '원탁테이블'을 통해 등록금 인상 문제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안건으로 학교와 대화를 나눔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유민지 후보 측은 지금부터 서명운동을 시행해 등록금 동결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 측에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후보 측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양교육 강화 공약을 제시했다. 유 후보 측은 계열별 등록금 책정을 추진하고, 학교 내 열악한 시설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후보 측은 정 후보 측에게 '원탁테이블'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물었고 정 후보 측은 원탁테이블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지만, 대화가 성사되지 않을 때에는 투쟁해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해> iamjh713@dongguk.edu



단기특2



세계 대학의 교육환경과 특징

대학들은 세계화에 부응하고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외 대학과 학술교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들도 해외유학을 통해 학문과 기술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신문은 세계 대학들의 교육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대학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번에는 미국편이다. 편집자

미국 토론과 기초학문 강조, 학문의 전당

의 태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진지한 자세로 공부에 임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Stanford대에서 유학을 한 홍승현(영어영문학) 교수는 "능동적인 토론수업이 학습능률이 높다"며 "한국에 와서 토론식 수업을 시도해 보았지만 학생참여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물론 우리나라 학생들이 토론식 강의에 익숙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학습에 대한 흥미는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하는 차이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학생은 대부분 점수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지만 미국학생들은 흥미분야에 따라 전공을 선택한다.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론식 강의가 건물 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강의가 끝나도 학생들의 질문 쏟아져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 자연스럽게 스터디그룹이 짜여져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게 된다. 이에 도서관 등 건물에는 큰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찰판 등 스터디그룹을 위한 방이 여럿 있다. 학습량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미국 대학은 학문적 기초가 없으면 응용도 불가능하다는 교육방식에 대한 흥미는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하는 차이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학생은 대부분 점수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지만 미국학생들은 흥미분야에 따라 전공을 선택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Nebraska대에서 유학을 한 김성중(영어영문학) 교수는 "자신이 흥미가 있는 분야를 공부할 때 생각도 풍부해진다"며 "미국학생들은 우리나라처럼 취업에 유리한 학과에 크게

미국대학은 '강의'에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 강의는 대부분 교수의 지식전달로 진행된다. 하지만 미국대학 강의실에서 교수의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다. 강의는 학생들이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수는 중요 순간마다 방향을 코치할 뿐이다. 수업에 대한 학생들

이와 관련해 미국 Nebraska대에서 유학을 한 김성중(영어영문학) 교수는 "자신이 흥미가 있는 분야를 공부할 때 생각도 풍부해진다"며 "미국학생들은 우리나라처럼 취업에 유리한 학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론식 강의가 건물 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강의가 끝나도 학생들의 질문 쏟아져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 자연스럽게 스터디그룹이 짜여져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게 된다. 이에 도서관 등 건물에는 큰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찰판 등 스터디그룹을 위한 방이 여럿 있다. 학습량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미국 대학은 학문적 기초가 없으면 응용도 불가능하다는 교육방식에 대한 흥미는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하는 차이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학생은 대부분 점수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지만 미국학생들은 흥미분야에 따라 전공을 선택한다.

이렇게 미국 대학은 교수나 학생 할 것 없이 높은 질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에게는 학문의 기초를, 교수에게는 끊임없는 학문의 연구를 바라는 대학이 미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칭찬합니다

우리 신문은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국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내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칭찬합니다'를 기획 연재한다.



⑦ 세포배양 통한 질병극복에 힘쓰는 박정국 교수

에슬리 문데규는 "사람은 젊은 채로 죽어 버린다"고 말했다. 이렇듯 사람들은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하며 젊음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하지만 이러한 젊음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충족되는 날도 멀지 않았다. 그 날은 바로 17번째 칭찬합니다 주인공 박정국(생명화학공학) 교수가 연구에 성공하는 날이다.

그는 88년부터 세포배양해 생 인공 피부, 생 인공 간 등 세포치료제, 조직치료제를 연구했다. 전격성 간 환자에게 돼지 간세포를 이용해 일시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2005년 봄에는 전국 최

우수 산학 공동연구실에 선발돼 정부 지원금도 받았다. 이러한 그의 연구는 노화된 피부를 새롭게 재생하는 것 외에도 사고나 급히 피부가 필요한 경우에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재생의료는 사람이 건강할 때 세포, 머리카락들을 일부 채취·저장해 놓은 다음 화상을 입는 등의 상황에서 저장된 세포를 원하는 만큼 배양해 이용할 수 있는 의료법이다.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지만 그만큼 어려움도 많다.

"해마다 박사과정의 연구원 지원자가 줄어들어 연구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는 전액 장학금을 주는 타학교처럼 우리학교도 적극적으로 연구원들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연구에 쓰이는 조직기부 문화가 일반화 되지 않아 직접 자신의 세포를 채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잦은 난관에도 그는 연구활동을 멈출 수 없다. 모든 인류가 질병으로부터 구제되는 날을 상상하며 오늘도 그는 연구실에서 실험에 여념이 없다. 김경민 기자 nanakm@dongguk.edu

Advertisement for Dongguk University Press. It features a large illustration of a tree with a question mark at its base, symbolizing the future and the role of the press. Text includes '지금까지 동국 역사의 흐름에 참여하셨나요?' (Have you participated in the flow of Dongguk's history so far?), '오늘 22, 23, 24일은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날입니다.' (Today, 22, 23, 24 are the days to elect our representatives.), and '당신 손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드세요' (Create new history with your hands). Contact information: 발전기금 060-700-0119, 동대신문사.

특성 살린 기념사업 추진 필요

100주년 사업,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동국 건학 100주년이 이제 1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우리 학교는 오는 23일 열리는 비전선 포식을 기점으로 건학 100주년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0주년 기념사업은 크게 △건학 이념구현 △역사정립 △건립 △학술(편찬 포함) △행사 △홍보분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동국독도수호대 등이 있다. 목격가 요제와 백상Festival은 200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졌지만, 100주년 기념사업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몇몇 인기가수의 출연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끄는 기존 대학축제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 이끌어 내야

우리학교는 다양한 분야의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술분야의 불교관련 사업을 제외하고는 학교의 특성을 살린 우리학교만의 100주년 사업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내년엔 건학100주년을 맞는 숙명여대의 경우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여성리더 양성을 목표로 리더십 개발을 위한 신 대학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숙명여대는 특성화 정책을 10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시켜 그와 관

련한 교육시설을 확충해 리더십 프로그램도 시행중이다.

‘Rock Festival’ 사업은 체계적인 조직 구성과 구성원간 합리적인 역할분담이 이뤄지지 않아 서울 국제 락 페스티벌로의 확장 계획이 무산됐다. Rock Festival 조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계획했던 국제 락 페스티벌이 진행되지 못해 아쉽지만, 내년엔 높은 수준의 공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주년 사업에 관한 학생들의 참여부족도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다. 100주년 사업본부에서 1년 전에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생 서포터스를 모집했으나 학생들의 지원율이 낮아 서포터스 구성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의미깊은 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동국 구성원 모두 100주년 준비에 앞으로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iamjh713@dongguk.edu

단기계획 ② 등록금인상 불가피한것인가

1. 국고보조금 2. 기부금

기부금 확충으로 등록금 외 재원 마련해야

학교 기부금과 등록금 용도차이 주장

학생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요구

우리나라 사립대학 전체재정의 등록금 의존율은 70~80%를 웃돌고 있다. 때문에 대학교육 비용의 대부분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충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대학이 등록금 외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학생·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기부금이 대학재정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가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립대학 전체재정의 등록금 의존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다. 정부보조금, 각종 연구기금으로, 등록금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비용이 충당된다. 미국은 학교에 내는 기부금은 액수에 관계없이 전액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대기업체의 경우 임직원이 학교에 내는 기부금 액수만큼 세금이 면제되는 매칭 펀드 제도가 운영돼 대학들의 기부금 조성이 비교적

수월하다. 우리나라도 대학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에게 감세혜택을 주고 있지만, 국·공립대를 위주로 지원돼 혜택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국·공립대 100%, 사립대는 기부금 지원분야에 따라 50%(시설, 연구 등 분야 지원 시), 5%(장학분야 지원 시)로 차등 감세되었던 법안을 국·공립대, 사립대 모든 지원분야에 75% 감세혜택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대학들도 교육재원확보를 위한 기부금 모금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강대의 경우 올해 6월 CEO 출신 손병두 총장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과거 2년 치 기부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대의 한 관계자는 “총장이 직접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기부금 모금이 활성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학교의

기부금 모금 상황에 대해 대외협력처의 한 관계자는 “서울대, 연·고대를 제외한 서울 주요대학 평균 정도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부금 모금액이 늘어나면 등록금 인상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대학 관계자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교 측은 “대학이 실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은 교비로 쓰이고, 모금되는 발전기금은 발전에 관련된 투자에 쓰여야 한다”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전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월적립금 환수와 2006년 등록금 인하를 위한 연세대 운동본부 이성호 본부장은 “학교 측에서 기부금 사용내역에 대해 공개하지 않으면서 기부금은 따로 적립해두고 학교발전명목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학 전체재정을 의존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마찰은 계속될 것이다.

iamjh713@dongguk.edu

회전무대

구명난 선거법

○...우리학교 선거홍보 벽보는 각각각색이라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선거 홍보를 위해 각 지정 게시판에 붙이는 선거벽보의 크기에 대한 정확한 규제가 없는 것이라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각 후보가 부착하는 선거홍보 벽보의 크기를 규격화 해야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선거홍보에는 규격이 필요해(!?)”

불친절한 구름다리

○...우리학교 구름다리는 일부 학생에게 모르지 못할 나무라는 데, 무슨 말이고 하니, 교수회관과 회화관 사이를 잇는 구름다리에 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통행하기가 불편한 것이라고.

장애인들이 난간 설치가 돼있지 않은 구름다리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학내 계단에 난간을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몸이 불편한 학생 왓, “구름다리에 난간이 없게 하는 것보다(?)”

예의상실

○...우리학교 만해관 스터디룸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자리 팔기가 비일비재 하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일부 학생들이 스터디룸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도 자리를 정리하지 않아 다른 학생들이 스터디룸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것이라고.

스터디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타 대학처럼 스터디룸 이용을 시간제로 운영해 일부 학생들이 자리를 독점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에티켓, 네티켓, 스터디룸켓(!?)”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학교 과방을 밤마다 제 집 드나들 듯 찾아오는 녀석이 있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과방의 팔쪽만한 쥐가 밤마다 아무도 없는 과방에 나타나 남은 음식물을 먹는 등 극성을 부리고 과방에 들어갈 때마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학생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쥐를 잡기위한 방역을 지금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병균을 옮길 수 있는 쥐를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위험한(?) 동거는 이제 그만(!?)”

졸업준비위원회 입후보자 인터뷰

“교비지원으로 앨범비 부담 줄일 것”

- 입후보한 이유는,
= 우리학교 졸업앨범비가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비쌌다. 앨범제작업체도 공개입찰로 선정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지난 03년도 제작업체 부도사건 등 그동안 졸준의 사업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 이를 개혁하고자 입후보하게 됐다.

- ‘졸업앨범비 반액 이상 교비지원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 이미 서울시내 여러 대학들은 교비로 졸업앨범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학교 학생들은 이번해 졸업앨범비로 6만 9천원을 납부했다.

졸업앨범비를 반액 이상 교비로 지원 받도록 추진할 것이다. 올해 이과대 학생회장 재임기간 중 학교 측에 교비지원을 요청했고, 학교 측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보여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비지원을 받는 경우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입찰과정과 앨범비 관리 등을 학교 측이 맡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학생이 1~2억원을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앨범업체 부도사건이 바로 그 예이다. 당시 졸업생들은 제 가격이 훨씬 못 미치는 앨범을 받았다.

공개입찰과정도 ‘투명화’ 할 것이다. 중강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2~3개 이상의 업체를 불러 진행할 것이다.



▲ 졸준위 입후보자 정형우(통계3)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질적 향상된 취업박람회 개최할 것”

- 주요 공약은 무엇인지,
= 우선 올해 처음으로 성사시킨 서울·경기·인천 졸업준비위원회 연합 취업박람회를 더 나은 모습으로 다음해에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박람회의 경우, 대규모 행사를 준비해본 경험이 없어 참가 기업 부족, 홍보 미흡 등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서울시청과 노동청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노하우를 얻었고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를 활용

한다면 다음해에는 질적으로 향상된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총동창회와의 연계사업도 체계적인 조직 구축을 통해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앨범 서비스를 보완해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

- 졸업앨범 제작에 관한 계획은,
= 우선 졸업앨범 제작 업체와의 논의를 통해 졸업앨범비를 지금보다 만원에서 만 오천원 정도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했던 동영상 제작 CD 판매를 중단하겠다. 개인들이 등장하는 분량이 제한되어 있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동영상 CD를 구입하는데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존의 졸업앨범보다는 더 나은 졸업앨범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 졸준위 입후보자 장명성(토목3)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반갑습네다” ... 탈북자 출신의 조선일보 강철환 기자가 지난 17일 동국관(M307)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평양에서 태어난 그는 6개월간의 탈북 생활 끝에 92년 8월 대한민국에 입국해 현재 북한내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경민 기자 nanakm@dongguk.edu





100년은 프리미엄이다!

100년간 키워온 무성한 학문의 숲을 나의 것으로!
100년간 맺어온 수많은 동문의 내력을 나의 것으로!
100년간 쌓아온 든든한 콘텐츠 위에서 출발하세요.

www.dongguk.edu

2006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대 학 원 명	원 서 접 수 기 간	전 형 일	홈 페이지 주소	문 의 처
일 반 대 학 원	인터넷접수: 2005. 11.10(목) ~ 24(목) 방문접수: 2005. 11.22(화) ~ 25(금)	2005. 12.10(토)	http://www.dongguk.edu/gs	(02)2260-3094~5
불 교 대 학 원	2005. 11.14(월) ~ 11.25(금)	2005. 12. 1 (목)	http://home.dongguk.ac.kr/~gsbs	(02)2260-3097~8
행 정 대 학 원	2005. 11. 7(월) ~ 11.18(금)	2005. 12. 3 (토)	http://graduate.dongguk.edu/pa	(02)2260-3101~3
경 영 대 학 원	2005. 11. 7(월) ~ 11.17(목)	2005. 11.19(토)	http://graduate.dongguk.edu/ba	(02)2260-3106~7
교 육 대 학 원	2005. 11.14(월) ~ 11.18(금)	2005. 12. 3 (토)	http://graduate.dongguk.edu/edu	(02)2260-3110~1

대 학 원 명	원 서 접 수 기 간	전 형 일	홈 페이지 주소	문 의 처
언 론 정 보 대 학 원	2005. 11.21(월) ~ 12. 1(목)	2005. 12. 3(토)	http://graduate.dongguk.edu/ci/	(02)2260-3723,3733
산 업 대 학 원	2005. 11.16(수) ~ 12. 1(목)	2005. 12. 3(토)	http://gsite.dongguk.ac.kr	(02)2260-3861,3602~3
문 화 예 술 대 학 원	2005. 11.14(월) ~ 11.22(화)	2005. 11.26(토)	http://graduate.dongguk.edu/ca	(02)2260-3606~7
국 제 정 보 대 학 원	2005. 11.23(수) ~ 12. 8(목)	2005. 12.10(토)	http://iai.dongguk.ac.kr/iai	(02)2260-3723,3733
불 교 문 화 대 학 원	2005. 11.14(월) ~ 11.24(목)	2005. 11.26(토)	http://wwwk.dongguk.ac.kr	(054)770-2393~5
사 회 과학 대 학 원	2005. 11.14(월) ~ 11.25(금)	2005. 11.26(토)	http://wwwk.dongguk.ac.kr	(054)770-2093~4



대학 내 친일청산의 후폭풍 불어야

친일청산 움직임 '잠잠' 해져 ... 학문적 성찰과 논의 선행돼야 할 것



고려대 명예교수 한승조의 망언을 시작으로 일본의 독도 망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광복 60년과 을사조약 100년을 맞이하는 2005년 한국은 '과거사 문제'가 최대 화두로 등장했다.

그동안 독재 권력의 시녀역할을 마다않던 국방부, 국정원, 경찰의 경우 자체적으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민간인들과 함께 구성한 데 이어 최근에는 새 대법원장과 새로 임명된 세 명의 대법관조차도 법원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언급하였다.

급기야 지난 15일에는 그동안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친일파 후손들의 뺨뺨스런 땅 찾기 소송에 대해 수원지법 이종광 판사의 판결까지 이끌어 낼 정도였다.

그러나 한해를 마감하는 지금, 돌이켜 보면 친일 청산과 과거사를 정리하는 문제의 바람이 잦아들고 속 태풍에 그친 곳도 있었다. '언론', '종교', '대학'이 바로 그곳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언론, 종교 그리고 대학은 그 사회의 올바른 여론을 생산, 선도하는 기능과 함께 사회의 소금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요청받고 있다.

이 기관들은 사회적으로 유·무형의 특권과 혜택을 부여받는 동시에 반대로 높은

도덕적 잣대를 요청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과거청산, 특히 친일청산이라는 명확한 시기에 자행된 행위에 대해 보여주는 태도는 과연 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도덕적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할지 의문일 정도이다.

'한승조 망언'을 기회로 학기 초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5개 대학은 자신들의 학교 출신자 중 친일인사들의 명단을 발표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학교 밖에서 일고 있는 친일청산 열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일회성에 그치고 말았다.

더욱이 학교 내 친일인사들의 경우 비단 이들 5개 대학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닌 예도 다른 대학들은 자신들의 친일문제에 대해 애써 눈 감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요즘 유행처럼 회자되는 '대학의 보수화'에 필자 역시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해방 후 친일세력들의 든든한 은신처이자 집결처가 된 학교가 친일청산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던 지난 60년 세월을 생각하면 굳이 학생들의 침묵을 '비겁'이라기보다는 '무지'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태도인지도 모를 일이다.

현재 연구소가 파악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학 내 친일 인사들의 '동상, 기념관, 장학금 현황'은 잔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 내 친일청산의 움직임은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제기돼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대학 내 구성원들 간, 활발한 토론의 과정을 전제로 한 다양한 방식의 친일청산 과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때이다.

이에 무작정 동상 철거 등의 급진적인 방안에 앞서 안내관 설치 등의 노력으로 학생들에게 알려나가는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 이후 모든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일제시대부터 해방 후의 독재시절에 이르기까지, 기록권을 포기하며 정의의 표상과 진리의 터전임을 자부해 오던 대학인들의 깊은 성찰과 분투를 기대해 본다.

사설

선거는 참여가 만든다

내일(22일)부터 3일간 선거가 진행된다. 학내 구성원의 모든 관심은 총학생회 선거에 쏠려 있다. 선거 정책토론회와 공동 선거유세를 진행하는 한편에서는 각 후보 운동원들이 공약을 뽐내는 등 선거 분위기가 한창이다.

그런데 이런 선거 운동원들의 유세는 학생들의 '관심'을 지나치고 있다. 선거유세가 시작되고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하지만 이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분위기는 다시 원상복귀 됐다. 정책토론회와 공동 선거유세에도 참여자는 각 진영 운동원이 전부다. 이들 공약은 명쾌하다. 학생회비 활용 계획과 등록금 논의방법뿐 아니라 장학제도, 학내환경개선, 문화사업증대 등을 준비했다. 하지만 진정한 후보자들이 동공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한다면 '한총련이냐, 비한총련이냐'라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관심을 환기시켜야 한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후보자가 한총련이든 한총련이 아니든 상관없다. 우리신문이 9월 29일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한총련 가입에 대해 스가 입된 사실을 몰랐다=62%였다. 또한 한총련 가입여부에 대해 △관심 없다=41%였으며 △찬성=31% △반대=28%였다. 인터넷 홈페이지 여론광장인 '나의주장'은 이 문제가 의외로 예민하다.

사실 학생들이 선거에 관심이 없는 걸, 이전보다 여론이 활성화 됐는데 어찌되는 것이냐는 반문도 나올 만하다. 하지만 학생들은 "관심없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관심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이 말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더라도 대안을 만드는 일은 필요하다.

무엇보다 유권자가 쉽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변한 것이 없다.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 중앙도서관에 이중투표로 인한 오차로 부재자투표소를 없앤 것뿐이다. 서울 시내 어느 대학은 전자투표를 진행해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한다. 때문에 올해 선거에서 분위기 조성이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 방안이 미흡한 것은 특히 아쉬운 대목이다.

이제 선거유세는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후보자 진영 등은 오늘날이라도 학생들의 참여유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방안이 없다면 몸이라도 굴러야.

동국만평

정명근 gmjce@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편집인 겸 주간	윤재웅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부주간	김세곤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편집장	황주상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대학 내 친일 청산 운동의 실태를 알아본다

학생들의 '외침'은 계속되고 있다

어두운 역사의 흔적을 규명하고 이를 바로 세우 나가야 할 주체는 다름 아닌 대학 사회이다. 하지만 광복 60주년을 맞아 불어 닥친 대학 내 친일파 청산의 움직임은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듯하다. 실상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의 망언을 시작으로 각 대학에서 불기 시작한 대학 내 친일파 동상 철거, 친일 인물 규명 시위 등 친일파 청산의 움직임이 잠잠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 내 의식 있는 학생들의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움직임은 다양한 형태로 '끓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경시대 법학과 학생들은 지난

8일 '친일파 잔재의 청산과 친일파 후손의 토지반환 소송'을 주제로 모의법정을 개최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대 법학과 임홍 양은 "매년 당시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 해는 어느 때보다도 친일파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만큼 이와 관련한 주제를 정하게 됐다"며 친일파 청산과 관련한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유도했다.

서울대 역시 올해 초 뜻있는 학생들이 힘을 모아 '친일잔재청산위원회'를 조직하고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이밖에 구성된 서울대 내 친일파청산위원회는 독도 영유권 문제,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의 친일파 비판에

따른 교수직 해임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친일파청산위원회의 최요진 위원장은 "다양한 학문에서 친일파의 잔재가 남아 있다. 학문적 논의와 함께 동상 철거 등의 물리적 노력이 결합돼 학생들이 주축으로 이를 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하기도 한 그는 "위원회의 힘만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데에는 무리가 따라 그동안 기자회견, 홍보물 배포 등에만 그쳤다. 하지만 학생회 활동을 하게 된다면 전체 학생들의 힘을 모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초 대학 내 친일파 청산과 관련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연세대

의 친일파 청산을 주도했던 바이정엽 민노당 학생위원 역시 현재 이와 관련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활동 중에 있는 민노당 학생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과거사 청산, 친일잔재 청산과 관련한 집회 등을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바이정엽 군은 "학생들의 관심 부족으로 활동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따르며 일부 학생들만의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홍보물이나 기자회견, 친일파 명단 공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활동 역시 전체 대학 사회의 관심 부족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 있는 학생들의 '고요 속 외침'이 계속된다면 대학 사회의 친일파 잔재 청산의 날은 그리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bob93@dongguk.edu

2006-1학기 우수장학금 신청안내

- 장 학 명 (장학금액) :** 우수장학 (등록금 30%)
 가. 단과대학장학 및 전공(학과)수석장학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순에 따라 선발함.
 나. 신규 교양장학생도 우수장학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에서 우선 선발함.
 다. 보훈자녀 등 계속장학생은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재학생으로 우수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
 가. 2005-2학기 취득학점이 17학점(졸업학점이 120인 경우는 15학점),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취득학점 미달 및 평균평점이 3.0미만인 경우 추후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나. 교내,외의 타 장학금을 받는 자 제외
 다. 2006-1학기 복학예정자 제외
- 신청기간 :** 2005. 11. 15(화) ~ 30(수)
- 신청장소 :** 해당 학업지도교수
- 신청방법 :**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평가기준 :** 아래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가. 학업성적 : 50점
 나. 사회봉사 : 10점
 다. 가정형편 : 20점
 라. 학업지도교수평가(학과특성 및 기여도) : 20점
 * 항목별 세부기준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해당대학 교학부에 문의바람
- 제출서류**
 가. 장학금신청서(Url: http://www.dongguk.edu에서 다운로드 사용)
 나. 사회봉사인증서
 1)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봉사기관에서 작성한 봉사활동 증명서류를 해당대학 교학부에 제출함.
 2) 동국봉사활동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자동 점수 처리됨.
 3) 사회봉사경력증서 발급 시 까지 계속 인정됨.
 다. 지방세 세무별(과)세정명세서 : 부모 각각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라. 기타 가정형편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마. 학업성적은 자동으로 점수 처리됨
 *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우수장학금을 수혜 할 수 없음.

학 생 처

2005학년도 2학기 학생강의평가 시행 안내

- 취지**
 강의평가는 강의에 대한 학생의견을 수렴하여 강의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정보를 담당교수께 알리드리고, 교육업적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니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05. 11. 28(월) ~ 12. 31(토)
- 대 상 :** 2005학년도 2학기 전체 개설강좌
- 응답자격 :** 2005학년도 2학기 재학생 전체
- 기타**
 가. 학생의 응답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나 본인이나 수강하는 전체 강좌에 대하여 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설문 응답을 제고를 위하여 수강강좌의 모든 설문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들은 인터넷 및 본교 전산망에서 성적결과를 조회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2005학년도 2학기 성적처리 일정 안내

- 성적공시 및 정정 기한**
 2005. 12. 26(월) - 30(금) 17시까지
- 성적 공시 : 12. 26(목) ~**
 * 12. 19(월) - 23(금)까지 입력 처리된 성적에 한하여 공시되며, 이후 입력된 성적은 담당교수별 저장처리 후 바로 공시됨.
- 성적 정정 :**
 (1) 공시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교수에게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성적정정 가능 기간은 교·강사별로 사전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2) 성적공시 및 정정기한 이후의 성적정정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내에 확인 및 정정하여야 함.
- 성적표 E-mail 성적 발송 :** 2006. 1. 10(화)예정
- 성적표 발송 :** 1. 13(금) 예정

*** E-mail 등록 및 주소 확인**
 : 본교 홈페이지 학사행정->주소지변경에서 E-mail 등록 및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E-mail을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개인성적을 발송함.)

교 무 처

건학 100주년 기념 디지털(영상문화) 콘텐츠 공모전

- 행 사 명 : 디지털(영상문화) 콘텐츠 공모전
- 행사 개요 : 건학 100주년을 기념하는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 향후 본교와 100주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함
- 공모 분야 : 사진·그래픽 부문, 동영상·애니메이션 부문
- 접수 기간 : 2005년 10월 24일 ~ 2005년 11월 25일
- 특이 사항 : "본 행사는 영상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됨"을 표시해야 함
- 상세한 사항은 행사홈페이지(http://digital.dongguk.edu)를 참조

정보관리실

사이코 드라마

"내 안의 숨은 나"를 찾아가는 심리극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일 시 : 11월 24일 목요일 2시~4시
 장 소 : 집단상담실 본관 2층 학생상담센터
 참여인원 : 선착순 20명
 대 상 : 사이코 드라마에 관심 있는 모든 동국대학교 학생
 리 디 : 최유미(강원대 학생상담센터 센터장)

학생상담센터

조류독감, 철새를 따라 날아온 재앙 고열·호흡기 질환 등으로 인간 위협

조류독감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요즈음은 철새가 이동하는 시기에 국내에서도 유행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 조류독감은 아직까지 가금류를 통해서만 감염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인간 대 인간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조류독감과 인간'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계절의 변화와 함께 자연 순환의 모습으로 북방의 철새들이 남하하는 계절이 왔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가장 주목 받는 것이 조류독감이다. 우산 독감을 야기하는 바이러스(Virus)를 살펴보고 어떤 위협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누구에게나 잘 걸리는 흔한 병으로 간단하고 가벼운 병이라고 생각되는 감기는 100여종의 바이러스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 중 Rhino virus(우리가 흔히 코감기라 부르는 것을 발생 시킴)에 의해서 많이 감염된다. 비슷한 증세의 시작이지만 극심한 발열과 통증을 유발하는 독감은 Influenza virus에 의한 것이다.

간단히 독감(인플루엔자)에 대해 알아보자면,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어린이, 청년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며, 대개 추운 계절에 더 많이 발생한다. 이 병은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퍼진 감염된 작은 알방울을 들이마시므로써 사람에서 사람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된다. 잠복기는 1~2일이고 이후 오한, 피로, 근육통 등의 증상이 갑자기 시작되며 체온이 38~40°C로 급격히 상승, 두통 및 온몸에 심한 근육통이 생기고, 흔히 인후부위가 자극에 대해 과민해지거나 따끔거리는 증상이 함께 생기며, 3~4일 후에 체온이 떨어지면서 대부분의

경우 회복되기 시작한다. 사망률은 발병 양상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낮은 편이며, 사망하는 경우는 대부분 폐렴이나 기관지염 같은 합병증이 원인으로, 다른 질병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진 노약자들에 일어난다.

Influenza Virus는 Nucleoprotein 및 matrix antigen에 따라 3가지의 type(A, B, C)이 있다. 그중에 인간과 동물을 숙주로 삼아 발병을 일으키는 동물 influenza virus는 type A이다.

Type A(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 표면 독감의 양상을 결정짓는 2가지의 표면단백질인 항체를 가지고 있는데, HA(Haem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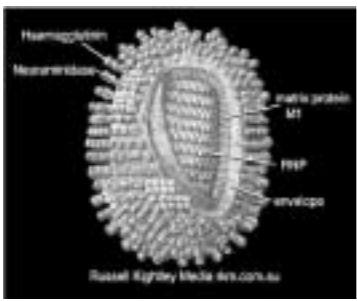


그림 1. 바이러스 모형

lutinin)과 NA(Neuraminidase) 등이 있다. 이들은 모양에 따라 HA는 15 종류, NA는 9종류로 이것을 산술적으로 조합하면 전체 135(15x9)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조류 독감(Avian Influenza Virus)은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조류의 감염성 질환으로 100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발생했다고 학계에 보고되었다. 닭, 칠면조, 야생조류 등의 많은 조류에 감염되며 전 세계에 걸쳐 분포 되어있다. 호흡기 관련 징후와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며 야생이 아닌 가축의 경우 감염 후 100%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조류독감을 고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로 제1종 가

축전염병으로 지정하였다. 감염은 오염된 조류의 호흡기 분비물과 대변에 의해 이루어지며 특히 오염된 대변이 다시 입을 통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조류독감의 무서운 점은 병원성이 약한 바이러스가 가금류 간에 전염되면서 병원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바뀌는 것이다. 1983년에서 1984년까지 미국에서 있었던 실험에서 본다면, H5N2 조류 인플루엔자는 처음에는 치명도가 낮았으나 6개월 뒤 병원성이 강해져서 치사율이 90% 이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1,700만 마리의 가금류를 도살시켰다.

조류 독감 중에서 H5N1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H5N1은 다른 종의 동물에 감염된 바이러스로부터 유전자를 받아 쉽게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성질이 있다. 특히 실험실 연구를 통해 병원성이 강해져 인간에서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류 독감은 정상적으로 조류와 돼지 이외의 동물에서는 감염이 안된다. 그러나 1997년 홍콩에서 H5N1 바이러스가 18명에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켰고

이중 6명은 사망하였다. 원인이 되었던 바이러스는 홍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를 유행시킨 바이러스와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로 밝혀졌다. 살아 있는 조류와 계속적으로 접촉한 사람들이 감염되었다. 또한 유전자 연구를 통해 바이러스가 조



그림 2. 근래 아시아의 발생 현황

집단 사육환경 '획기적' 개선으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조류독감이 지구촌 전역에서 대량집단으로 발생되면서 전 세계가 백신개발과 의학적 수단에 의한 사후대책에만 아단법칙을 뚫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태양 빛이 차단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사육 시키는 닭, 오리, 돼지가 적어도 자연환경에 가까운 사육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시켜 주어야만 조류독감이나 원인불명질환의 발생 원인을 해소시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 그 대안은 모든 실내 생태계의 생장을 활성화시키면서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부가기능을 가지는 차세대 조명기술로 집단사육의 실내를 획기적으로 밝게 하고, 열악한 실내공기를 신선한 외부공기로 충분히 순환시켜 주어야 된다. 그리고 한 마리 당 활동공간을 넓혀 주어야 한다.

과거부터 공생공존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지나친 인간중심의 욕심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먹이사슬의 질서붕괴와 동시에 인간에게 되돌아 오는 재앙에 불안해 하지 말고 진작부터 자연설리에 맞게 집단사육장환경부터 개선했어야 했다.

현대와 같이 산업사회로 발달되기 이전의 자연생태계는 행복했다. 청정한 태양 빛 아래 맑은 공기, 물, 흙과 나무가 어우러진 자연의 환경의 엄연한 먹이사슬집서 속에서 살아 왔었다. 그러나 인구증가와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대량수요가 요구되자 그들은 점차 행복한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 인간이 강제로 억제시킨 극도의 열악한 집단사육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면서 먹이사슬에서 부작용과 역기능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의 자연 생태계 동물들은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나 대형화된 양계나 양돈 축산농가에서만 볼 수 있는 각종 질환은 없었다.

집단사육장에서 각종 질환이 대량집단으로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그들 원래의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인간에 의하여 열악한 인위적 환경으로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자연 속의 모든 동물들은 각기 무리 속에서 이렇다 할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자연환경에서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즉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청정한 태양 빛과 맑은 물과 공기 덕택일 것이다. 현재 대형 양계장의 닭들은 달걀생산기 계와 되어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십 년 동안 연구를 거듭하여 얻어낸 사육기술이겠지만, 닭, 오리, 돼지들이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으로 변하고 말았다.

현실의 양계장과 같이 완전밀폐구조로 하고, 극히 낮은 조도의 인공조명을 하는 근본이유는 첫째로 일조량의 조절목적이지 아니고 일조시간을 인공적으로 연장시켜서 잠자는 시간을 단축시켜 산란율을 높이고, 둘째로 양계장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대량밀집사육하고 먹이를 통째로 흘려주기 때문에 어찌다가 무리중의 한 마리 닭 벼슬에서 피를 흘리게 되면 주위에 있는 닭들이 상처가 난 닭이 죽을 때까지 집단으로 공격하는 습성이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앞에 있는 먹이만 겨우 보일 정도로 밝기를 강제조절하기 위해서이다.

현재와 같이 대규모 양계장 시스템은 어제오늘이 아니고 벌써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으므로 닭들이 너무나 열악한 빛 환경과 공기환경에 억지 적응하면서 퇴화되어 왔으므로 조류독감과 같은 치명적인 재앙이 전 세계에서 집단으로 발생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건강한 먹이사슬에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인간이 동물에게 저질러 놓은 대가가 결국 인간에게 재앙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엄연한 먹이사슬의 원리를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집단사육장의 기초생태환경을 시급하고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최만 객원기자(경향학 석사과정)
choikwan@dongguk.edu

한·중·일 학술회의의 25일 열려

북한학연구소(소장=강성윤·북한학)가 오는 25일 오후 2시 동국대 행정대학원 첨단강의실에서 학술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 발표 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전망'이며, 사회는 박순성(북한학) 교수가 맡았다. 내용은 △제1발표=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김경일·북경대) △제2발표=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한용성·국방대) △제3발표=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구라타 히데야·일본국제문제연구소)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학 연구소 강성윤 소장은 "한반도 주변국가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류독감의 전파·감염 경로

“아는만큼 대비할 수 있다”

조류독감이 유행하기 쉬운 추운 계절이 왔으며, 북쪽으로부터 겨울철새가 국내로 이동하면서 조류독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조류독감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위축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조류독감의 전파 경로는 우선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동물은 아마도 개와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과 소 돼지 닭 어류 등의 산업동물일 것이다. 애완동물은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직접 감염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 산업동물도 축산농가 등 직접 사육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반인이 접촉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축산농가는 자신이 기르는 가축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항상 따르다. 자신의 농장을 야생 조류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2003년 국내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 농립부 방역 당국이 감염된 닭과 오리들을 신속하게 도살 처분한 것은 국내 축산업을 보호한 측면도 있지만 더 나아가 조류독감과 사람들의 접촉을 불가능하게 한 데 더욱 큰 의의가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와 같은 초기 방역에 실패함으로써 현재

류에서 바로 사람에게로 감염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야생고양이에게서 인간으로 감염되었다고 여겨지는 사스와 같이 조류독감의 위험성은 인간 이외의 동물에게서 한정적인 병원균이 인간에게 전염된다는 점이고, 그 전염의 파괴성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고, 새로운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갖추어져 있는 많은 인간에게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조류독감은 아주 좋은 변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접촉, 공기, 물 등에 의해서 전파되며 일반적으로 3~14일의 잠복기가 있고 독감과 비슷한 증상으로 열, 기침, 근육통을 보인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통계로는 인간 치사율이 50%에 이른다. 현재까지 사람과 사람으로의 전염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조류독감의 높은 변이성을 본다면 안심할 수만은 없다.

올해도 농립부는 시베리아와 몽골 등 이미 지난 7월 조류독감이 발생한 곳에서 겨울철새가 이동해 올 경우 배설물 등을 통해 조류독감이 퍼질 위험이 있다며 10월 14일 조류독감에 보름 발령했다. 우리나라는 축산 농가를 살릴 때 2003년 12월 전국에 확산된 조류독감으로 생산농가와 닭에 관련된 산업 전체는 많은 어려움과 일부 도산을 경험했다. 이제는 이것과 국민보건을 함께 생각할 시점이다.

박윤석 객원기자(농학 석사과정)
siron6903@dongguk.edu

동국 시문학의 발자취

詩

호영송

참 많기도, 많은 눈송이입니다.

손을 벌려 눈송이를

받아 봅니다.

눈송이는 어느새 스러져 버리곤

스러져 버리곤 하여

당신에게까지 건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작

내 차가운 손을

건네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한번 들으면 쉽게 잊히지 않는 이름이 있다. 내게 그런 이름 중의 하나가 '호영송'. 소설 '파라의 안개'로 처음 알게 되었을 때부터, 호기심이 꼬리를 물던 이름이었다. '호(胡)씨도 있구나.' "영송? 꽃피루 영(英), 노래 송(頌). 아, 정말 타고난 문사의 이름이네." "시인이면서 소설가, 거리가 모교의 대선배!" 그런 이름이네, 어찌 잊혀졌는가. 내 머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이중 삼중의 자물쇠가 채워진 이름, 호영송.

이름뿐이 아니다. 시력이 나빠서 한두 번 본 얼굴은 잘 기억을 못하는 내가 금세 알아보는 몇 사람 중의 하나가 그분이다. 아니 그분이 먼저 나를 알아보신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병이라 시인 시절에 공손히 인사 한번 여쭙 일밖에 없는데, 언제나 나보다 먼저 손을 내밀거나 인사의 말을 먼저 꺼내놓으시는 분이다. 그때마다 나는 착한 일을 해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는 어린 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발칙한 상상이지만, 나는 그분을 뵈거나 떠올리면 문학 교과서 표지 모델로 알맞은 분이란 생각을 하곤 한다. 젊은 미소에 언뜻 언뜻 우수의 빛이 지나는 표정이 사뭇 문학적이고, 부드러운 목소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오래된 만년필 글씨 같다는 느낌에서다.

위의 '시'를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다. 잉크로 또박 또박 써내려간 원고지 생각을 했다. 시를 쓰는 마음이란 따뜻한 손이 차갑게 식도록 눈송이를 받고 있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그분의 나직한 목소리를 들었다. 벌써부터 첫눈이 기다려진다.

윤 제림
시인·서울예대 교수

중앙도서관 신작도서



식도락여행
한스 페터 폰 페슈케 지음 / 이기숙 역
이마고, 2005. 10.

서문에 의하면 저자는 이미 고대의 미식에 관한 저서를 쓴 바 있는데 그 반응이 매우 좋았고 주위에서 다른 책을 계속 쓸 것을 권유받아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대 로마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대표적 요리를 그 시대 가장 유명한 사람들의 일화를 살짝 곁들여 소개하고 있다. 맛있는 책이란 이런 것일까?

소개된 요리는 저자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주위의 평가를 거친 것이라고. 『식탁위의 쾌락』(하이든론 메르클레 지음, 열림원, 2005)이란 책과 비교하여 읽어보아도 재미있을 듯.



도서관의 신 헤르메스를 찾아서
남태우 지음
창조문화, 2005. 10.

도서관은 예로부터 지식의 보고라고 한다. 단순히 책을 모으고 보관하는 곳일 뿐 아니라 지식을 형성하고 영감을 주는 지식의 원천이었다. 따라서 지배자들에게는 도서관이 사상적으로 위협한 곳으로 치부되어 끝없이 금서를 지칭하고, 도서관을 불태우는 일이 계속되어왔다. 도서관은 진시황의 분서갱유, 스페인의 아즈텍 서적의 파괴부터 나치의 약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인간 지식을 향한 통제와 관리의 전성터가 되어 왔다. 도서관의 수난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이다. 학문의 자유란 아직도 인간에게는 요원한 것일지도 모른다.



We 프로젝트
주디스 E. 클레이저 지음 / 한근태 역
흐름출판, 2005. 11.

요즘 기업문화와 생산성에 관한 자료들이 모두 쟁쟁 읽을 틈도 없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독재적 리더십에서 참여형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인 듯하다. 이 책은 제목에서 여실히 보여주듯이 구성원 개개인의 이기주의와 영욕주의, 다른 이들에 대한 비판, 무사안일주의 등을 타파하고 '우리'로 거듭나는 것이 조직혁신 성공의 해법임을 설득하고 있다. 레브론, 클레를 등 저자가 직접 컨설팅을 한 기업의 실제 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오규철 객원기자(경향학 박사과정)
orange972@dongguk.edu

얼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문의·재보 : dgupress@dongguk.edu

‘글로벌 동국’ 위한 자매학교 체결과 학점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하자

건학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우리들이 지나온 길과 나아갈 길을 그려본다.
불교대학의 중추로서 우리학교가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미친 영향은 실로 지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적이며, 보수적인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인상이었다. 그것은 불교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일면만이 마쳐 그것이 전체인 양 우리의 이미지로 고착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런

굳어진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안으로는 우리의 건학이념인 숭고한 불교정신을 계승하면서도 밖으로는 건학이념이 다른 여러 학교와의 다양한 학점교류와 자매학교체결 등을 통한 대화와 논의의 장을 열어 학교교류를 학교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교류의 대상 또한 국내의 대학에 국한시키지 말고 세계 유수의 대학교와 손을 맞잡고 ‘글로벌 동국’

의 모토에 맞는 의미 있는 일들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서양에서 바라보는 동양의 불교는 신비로운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강력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불교학교라는 정체된 이미지만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야 한다.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융통성을 발휘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사학으로 발돋움 해야 할 것이다.
이제인(사범대 교육3)

활력있는 자신과의 약속은 특별한 겨울방학 만들 것

가을이 오는 것은 느꼈지만, 채그 가을을 온 몸으로 느끼기도 전에 찬 기운이 돌고, 공기에서 겨울 냄새가 나는 게 분명, 또 한반의 겨울이 오고 있다. 사계절이 있는 곳에 산다는 것, 또 그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생각한다.
산과 들판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과 나 또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윤택함은 덤이고, 계절마다 새로운 마음가짐과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듯하다.
내가 잠시 영국에 있을 때, 그

곳의 날씨는 정말 ‘변화무쌍’ 그 자체였다.
맑은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구름이 비를 뿌리기도 하고, 거센 바람이 불었다가 따뜻한 햇볕이 태연히 내리쬐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했는데, 이런 곳에서 몇가 온다고 우리처럼 ‘동동주에 파전’을 떠올릴 순 없는 노릇이었다. 그 곳에선 드물거나 흔하지 않은 일상이었으니 말이다.
예전에 내가 아는 분이 필리핀에서 그곳의 덥고 습기 찬 날씨 속에 현지인 친구에게 “It's sticky today!”라고 했더니 이해를 못하

더라고 했다. 이 또한 그들에게 ‘자연스러움’, ‘항상 그래왔음’이기 때문이었다.
무엇인가가 일상화돼 더 이상 자극이 되어주지 못할 때 시간들은 웃을 바라며 우리에게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일깨워 준다. 우리는 긴 동면을 준비하는 동물이 아니다. 겨울이 온다고 활동을 줄이고 안락함 속에 몸을 쉬게 하려 하기보다 더욱 분주하고 바쁘게 새로운 무언가를 찾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나도 내 자신과 단단히 약속을 하려 한다. 내 가슴 속 뜨거운 꿈과 기운으로 이번 겨울을 향해 달려보자고 말이다. 그러면 아마도 특별한 겨울이 될 것이다.
한이화(사과대 정외4)

정상에 올라 느끼는 성취감 학교서 얻을 수 없는 신선함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갈 무렵 김환기 교수님과 나를 포함한 6명이 설악산에 다녀왔다. 시험이 끝난 바로 다음날이어서 조금 설레는 기분이기도 했다. 설악산은 중학교 이후로 처음이었다.
약 3시간정도 버스를 타고 달려 설악산에 도착했다. 우선 가방에 짐을 나눠 담고 대청봉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산을 올랐다. 4·19 등반대의 북한산과는 처음부터 달랐다. 가파른 비탈길에 조금은 다들 지쳐가기 시작한다.
“아, 드디어 정상이다”

그렇게 대청봉은 얼굴을 내비쳤다. 산행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가장 적당하다. 힘들어도 계속 걸어간다. 정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청봉에 올랐을 때의 그 느낌, 조금씩 나눠 마신 막걸리의 달콤함. 비록 머문 시간은 우리 인생의 긴 시간 속에 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그 느낌과 마음은 가슴 한켠에 작게나마 새겨져리라 믿는다. 정상에서 바라본 설악의 웅장한 모습, 희미한 구름을 발아래에

두고 마치 세상의 정상에 닿은 듯한 느낌으로 걸어갔다.
대청봉에 오르는 일이 가장 힘들거라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내려오는 길이 더 힘들었다. 교수님과 우리는 지쳤지만 끝까지 걸었다. 중간에 있던 계곡에서는 물에 발을 담그고 휴식을 가지기도 했다.
짧은 여행이었다. 많은 걸 느끼고 얻었다. 다리가 아픈 만큼 마음은 든든했다.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감싸주는 우정, 정상에 다다른 성취감. 학교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이었다. 특히 교수님께서 주신 마른 파인애플의 맛은 잊지 못할 것만 같다.
박동선(문과대 일본4)

달하나 천강에



김 무 곤
사회과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요즘 일부 학생들은 정치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을 마치 자랑거리처럼 말한다. 어쩌다 학생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어찌 저녁에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에 나온 연예인 이야기, 새로 나온 게임이나 영화이야기, 컴퓨터나 카메라폰의 성능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그런 이야기 중에 어떤 학생이 대화중에 사회문제나 정치 이야기를 꺼낸다면 아마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 취급을 받을 지도 모르겠다.
오죽하면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시간을 때우자고 하는 ‘우스개소리’에서조차 주로 명칭한 사람이나 사기꾼으로 등장하겠는가? 이렇게 된

정치무관심은 자량이 아니야

데에는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의 잘못이 크다.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지역주의나 파벌, ‘보스 정치’와 같은 기득권을 유지하는 장치가 인주해서, 정작 할 일인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에는 소홀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계속 이렇게 정치를 업신여기고, 회화화하고, 천시해도 좋은 것일까? 아니다. 우리는 정치 없이는 살 수 없다. 오히려 국민이 정치로부터 멀어질수록 정치는 더 나빠진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를 챙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좋은 정치를 가질 수 있다.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과 비례한다고 하지 않던가?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는 법칙과 질서, 그리고 모순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정치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에 대해 자각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자랑스레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보다 깨끗하고 세련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인간사회를 다른 동물들의 사회와 구별해주는 것은 삶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과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여어빠 여기는 마음이다. 그것을 가 지려는 의지가 없다는 일은 실은 자량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이탈리아의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에 의하면 “자기 안에 있는 타자(他者)를 발견할 때 사람은 비로소 ‘윤리’를 얻는다”고 말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육체를 존중하고, 그 육체의 확실한 다른 사람의 말, 사상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팔을 꼬집으면 아픈 것처럼 다른 사람도 꼬집으면 아프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야말로 ‘사람됨’의 시작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오래 계획된 일이든, 잠시 동안의 착란이든, 피해자를 타자가 아닌 물(物)로 간주함으로써 생기는 일이다. 나치의 유대인 대량학살은 나치 학살자들이 ‘타자’의 범위를 자기 민족으로 국한시켰기 때문에 생긴 일일 것이라.
그렇다.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관심의 시작이고, 사회적 인간으로서 우뚝 서는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요즘 학생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일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사실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독자 사진첩



추계답사 ... 이달 초 2박3일간 불교유적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해인사에 둘러 산을 느끼고,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답할 때는 절이 좋은 것 같습니다. - 불교유적답사학회

독자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4매 분량의 글을 여려면에 게재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ongguk.edu

보리소

상하이행 밤기차에서

무척 험했었다.
오후에 북경을 출발한 상하이행 밤기차에 올라 3층 침대에 몸을 누이고 있자니 피로와 함께 짙은 의외움이 엄습하였다.
아래 침대에는 중국인 가족들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청년들은 끼리끼리 모여앉아 연신 웃음보를 터뜨리는데 이방인인 나만 홀로 열차의 흔들림에 몸을 내맡긴 채 그렇게 까만 밤 속을 여행하고 있었다.
배낭을 베고 누워 잠들 사람을 그리워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질질하게 그리운 얼굴은 그다지 많이 떠오르지 않았다. 과연 내가 잠들 그리워해도 좋을 친구가 있는가? 그 친구에게는 또 내가 그러한 친구일 것인가?
한 사람씩 떠오를 때마다 손가락을 꼽았지만 다섯 손가락이 채 꼽히지 않자 나는 더 깊은 잠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 순간 박물관에서 산 염색의 시 한 구절이 내 눈길을 끌어당겼다.
살아가면서 단 한 사람의 벗을 만났다면 그것으로 족하다(人生得一知己足矣, 노신).
그래, 내가 더 무엇을 바라랴.
홀로 떠난 타국의 밤기차 그 막막한 공간에서 내가 잠들 그리워 할 단 한 사람의 벗이 내게 있으리 그것으로 되었다.
도움을 주기 위해 일곱 걸음을 같이 걷는 사람은 친구요, 열 두 걸음을 함께 걷는 사람은 진실한 동지이며,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을 보냈으면 자기 자신과 같다.(자타카)
이 미령
동국역권원 역경위원

동국 히노아락



▲ 명진관 정초



▲ 전지계산원 개원(해화관)



▲ 대학원 전용건물(현 동국관)



▲ 동국학술문화관 준공

⑦ 우리학교 건물의 역사

우리학교는 작은 캠퍼스 때문에 건물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다. 건물들은 지금 반듯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픈 과거가 있다. 폐교와 개교를 반복하고, 한국전쟁으로 부서지기도 하며 100여년 가까이 버텼다. 비록 우리학교 건물이 아름답지는 않지만, 전통 있는 우리학교 건물의 역사를 알아보자. 우리학교 중심에 우뚝 서 있는 명진관은 1956년 12월 30일에 준공됐다. 이어서 1958년에는 대학본관이 준공됐다. 중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들의 자치문화가 숨쉬는 학생회관은 학생운동바람이 한창 몰아칠 무렵인 1971년에 준공됐다.
1973년은 미래의 교사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림관, 1982년은 동국관이 준공됐다. 학생들이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해광장은 1989년에, 우리학교 수많은 구성원의 끼니를 책임지는 상록원은 1999년에 준공됐다.

지न्ह오 동대신문을 읽고

신문에 대한 관심 환기 시켜야

이번 동대신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1면 톱기사다. 큰 제목으로 선거를 알리는 기사는 침체된 학생회에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었다. 또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은 아이템 선정으로 좋았다. 하지만 사진의 구도와 역동적인 선거운동원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 1면 사진으로는 선거운동의 현장성을 느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면 보도면은 기존에 짧은 기사로 지저분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좋았다. 적절한 크기의 기사배치와 사진으로 편집이 깔끔했다. 또한 3-4면 선거특집면은 총학생회 후보자와 단과대 학생회 후보자 인터뷰는 적절한 아이템 선정이었다. 하지만 단과대 학생회 후보자 인터뷰는 지면배치가 아쉬웠다.
또한 여론면은 칼럼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인다. 광고단 없이 기사로만 채워진 여론면은 보기 불편했다. 사람면은 우리학교 동문을 만날 수 있는 지면이라는 점이 긍정적이다. 또한 동국리서치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 ‘나의주장’처럼 한쪽으로 치우치고 비생선적인 의견이 아닌, 다음 총학생회에 바라는 점을 생산적으로 다뤘다.
문화면은 동향을 읽을 수 있는 ‘문화다양성협약’에 관한 내용은 독자에게 도움이 됐다. 하지만 정신산만한 기사배치와 기사비중에 감각이 없는 편집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날면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가 있어 대학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동대신문 애독자로서 바라는 점이 있다. 학교 안에 신문 배부대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리고 동대신문의 인지도도 낮다. 이에 동대신문의 인지도를 높여 학생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박명인(문과대 영문3)

금주의 식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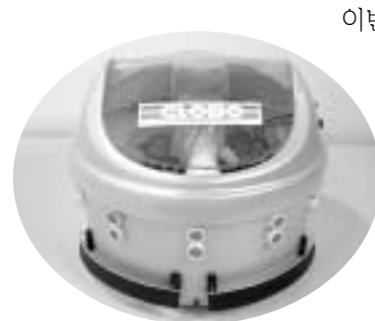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11/21)	김지랑 (2000)	쇠고기국밥 (1800)	원장찌개 (3200)
	중국식볶음밥 (2000)	재육김치덮밥 (2000)	황태뽕배기 (3500)
	불고기비빔밥 (2000)	닭강정 (2000)	닭갈비 (3500)
화 (11/22)	돼개장 (2000)	순만두국 (2000)	원장찌개 (3200)
	탕수육 (2000)	모듬볶음밥 (1800)	육개장 (3500)
	어묵우동 (1800)	순두부찌개 (2000)	누지볶음 (3800)
수 (11/23)	돈육김치찌개 (1800)	쇠고기미역국 (2000)	원장찌개 (3200)
	오징어아래볶음 (2000)	케라리이스 (2000)	대구매운탕 (3500)
	함박스테이크 (2000)	비빔밥세트 (2000)	버섯불고기 (3800)
목 (11/24)	비지락수제비 (1800)	부대찌개 (2000)	원장찌개 (3200)
	치즈볶음밥 (2000)	돼도리탕 (2000)	초밥우동 (3800)
	안동찜닭 (2000)	떡볶고기 (2000)	삼겹살김치볶음 (3500)
금 (11/25)	짬뽕국밥 (1800)	설렁탕 (2000)	원장찌개 (3200)
	떡만두강정 (2000)	오징어불고기 (2000)	보쌈 (3800)
	두부김치 (2000)	우무라이스 (2000)	해물찜 (3800)

‘2005 한국청소로봇경진대회’ 금상 수상자들을 만나

“지속적 연구 통해 학교 빛낼 것”

“이번 수상으로 학교를 빛낼 수 있다면 영광이죠.”
 아마추어이지만 ‘프로’ 못지않은 실력으로 로봇을 직접 만들고 연구하며 학교를 빛내는 학생들이 있다. 지난 달에 개최된 ‘2005 한국청소로봇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변희수(전자4), 임종남(전자3), 이영종(전자3), 김하나(정보3) 팀이 바로 그들이다. 국제 지능로봇경진대회 지정 공모 분야인 청소로봇 부분에서 수동 작동과 자동 작동을 조합한 ‘클로보 로봇’을 선보이며 ‘값진’ 결실을 따낸 그들.
 인터뷰를 위해 찾은 그날도 로봇 수리에 여념이 없는 이번 대회의 수상자들을 만나 대회 출전 계기와 작품을 만들면서 느낀 점에 대해 들어보았다.

- 대회에 출전하게 된 동기는.
 = 평소 공대, 정산대 연합 동아리인 DSSP에서 로봇을 연구하고 사람이 로봇을 제어하는 기능과 시스템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해왔다. 그동안 동아리 내에 뜻이 맞는 학생들이 함께 팀을 만들거나 개인적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해 많은 상을 타기도 했다.



▲클로보 로봇.

이번에 지정 공모 분야인 청소 로봇과 관련한 연구는 동아리 내의 학생들이 3개월 이상 준비하고 있던 작품으로, 뜻이 맞는 학생들이 모여 대회에 출전하기로 결심했다.

무엇보다 동아리 사람들이 함께 연구하고 도와주었던 것이 대회에 출전하고 수상하는 데에 큰 힘이 됐던 것 같다.

- 이번에 개발한 ‘클로보 로봇’에 대해 소개한다면.
 = 클로보 로봇은 청소를 위해 제작한 로봇으로 비교적 간단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대회 진행 방식이 청소를 위해 만든 로봇이 얼마나 많은 주변 쓰레기를 처리하고 장애물들을 잘 피해 가느냐에 평가 기준을 두고 있었던 만큼, 클로보 로봇 역시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연구했다.
 따라서 이번 로봇은 기계 앞부분에 달린 브러시와 쓰레받기가 주변 쓰레기들을 주워 담고 로봇 안쪽에 내장된 진공기가 이를 진공으로 흡입하도록 했다. 또한 별도로 센서를 장착해 장애물을 인식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든 작품이다.

- 연구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 동아리가 생긴 이후 별도의 연구실이나 동아리 방이 마련돼 있지 않아 매일 강의실과 실험실을 이동해 다니며 연구해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로봇 제작의 특성 상 고가의 장비가 많은데 이를 보관해 둘 장소가 없어 개인 사물함에 넣어 두었다가 저녁에 모여서 연구할 때에는 장비들을 조립하고 준비하는 데에만 한 시간씩이 소요되었다.
 또한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밤을 새야 하는 날도 많았는데, 자정이 넘으면 강의실의 문을 잠가야 하기 때문에



경비 아저씨에게 여러 번 쫓겨나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번 결실을 맺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이번 수상 이외에도 그동안 동아리 내 많은 동기가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이 역시도 학교를 외부에 알리고 빛내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동아리의 특성 상 다양한 장비로 인해 연구 공간이 좁았다. 계속해서 학교에 이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뤄지고 있다.
 타 대학의 경우는 우리와 같은 연구를 하는 동아리나 소모임에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연구공간이나 비용 등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하루 빨리 연구 공간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며, 그 밖의 지원도 이뤄질 수 있다면 더욱 연구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지은 기자
bot83@dongguk.edu



박정희/주원장

정태섭 교수의 역사속 인물이야기



박정희, 주원장 정치의 ‘득과 실’

박정희 정권 때의 정치행태와 정치체도를 생각할 때마다 중국 명나라의 건국자인 주원장을 떠올리게 된다. 주원장은 중국 역사 속에서 가장 전제적인 군주로 꼽힌다. 그가 만든 갖가지 정치체도와 운영을 역사가들은 흔히 ‘황제독재체제’라고 부른다. 그는 방대한 양의 행정서류를 직접 읽고 결재하고 감찰기구를 설치해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조작했다. 조정의 대신이라 할지라도 그의 비위를 거스르면 조정에서 공개리에 불기를 때리는 망신을 주었다. 행정을 직접 챙기고, 정보기구를 통해 정보를 조작함과 동시에 언론을 탄압하고, 폭력으로 그의 독재체제는 성립했던 것이다. 주원장은 원명교체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질서를 회복하였으며 중국을 재통일하는 데에 성공했다. 따라서 그의 황제독재체제는 ‘개발독재’ 형의 성공을 거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박정희는 국가의 모든 현안을 직접 챙겼다. 그가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해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우리 민족의 오천년 가난을 씻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앙정보부와 보안서명부를 두어 정보의 조작과 독점, 언론 탄압, 공작정치 역할을 하게 했으며, 양 기관을 서로 견제하게 했다. 또 청와대 비서실은 행정부의 장관 위에 군림하였으며 청와대 경호실장은 제 2의 권력을 누렸다. 이것은 바로 측근정치·비서정치로 독재 권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박정희와 주원장이 똑같이 정보·공포·폭력·측근정치를 이용한 독재정치를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600년의 시차를 뛰어넘는 공통점이라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된다. 그리고 개발독재의 효용성과 한계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주원장 정권은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를 추구하고 이는 훗날 지방의 소외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중앙과 지방이 분리돼 중앙과 지방의 조정자로서의 황제권력의 존립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이 가장 큰 명의 멸망원인이 됐다. 명의 멸망은 만주족 정권(청)의 중국지배를 불러들였고, 중국 역사의 내재적 발전 가능성을 고사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청대의 반동적인 통치 아래 중국 역사의 ‘근대’로의 이행을 저해하였고 서양의 지배를 받게 하였던 것이다. 주원장의 황제독재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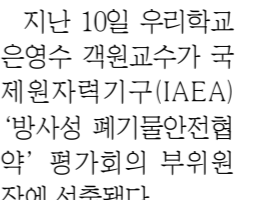
박정희의 경제개발은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공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가 남긴 아이너스의 역사유산 또한 우리가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커다란 부채로 남아있다. 개발과 성장의 이름 아래 계층간 격차와 지역간 차별이 발생하고 정당화되었던 바, 박정희 이후 우리 역사의 흐름의 기본적인 방향은,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쪽으로 향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야기되었고 우리를 혼란케 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의 독재를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시대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 당대의 역사평가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새삼 통감하고 있다.

인물동정

은영수 교수 IAEA 부위원장에 박근표 동문 리옹영화제 수상



지난 10일 우리학교 은영수 객원교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방사성 폐기물안전협약’ 평가회의 부위원장



에 선출됐다. 과학기술부는 이번 선출에 대해 은 교수가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공동협약’ 평가비준회의에서 핀란드, 아르헨티나 대표와의 경합 끝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단편 영화 감독으로 주목받는 우리학교 박근표 동문(연극영화 97졸)의 작품 ‘Wake’가 지난 13일 페막한 프랑스 ‘리옹 아시아영화제’에서 단편부분 심사위원장과 일반관람객상을 수상했다. 박 동문의 이번 작품은 엄마의 시체 옆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5살 소녀가 4일을 보내게 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선배를 만나다

“열린 박물관 만들고 싶어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팀 팀장 최웅천(불교미술 84졸) 동문

우리는 가끔 찾는 박물관 유물을 통해 역사 속 세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당시의 생활상을 추측한다. 이처럼 유물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유물을 연구하며 과거와 소통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팀의 최웅천(불교미술 84졸) 동문이다.

최 동문은 “친구들과 놀러 다니길 좋아해 대학에 와서 우리나라 범종 56종을 찾아 조사하고 탁본도 했어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문화재 연구원’ 동아리를 만들게 됐지요”라며 학생시절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저학년 때부터 주위 영향으로 박물관 일과 관련한 정보를 많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박물관과는 남다른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라며 그가 문화재 관련 분야에 매력을 느끼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국립박물관장을 지낸 미술학과 문명대 교수와 우리학교 박물관장을 지낸 황수영 교수 등 은사의 영향이 컸다고 말한다.

1983년부터 그가 근무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은 1여년에 걸친 새 단장 끝에 지난 달 28일 옹산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는 세계 6번째 규모일 뿐만 아니라 체험위주의 박물관으로써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최 동문은 신설 부서인 ‘전시팀’의 팀장으로서 박물관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지난 3년간 춘천 박물관 초대 관장을 지내면서 관람객을 가르치는 전시가 아닌 흥미롭고 기억에 남는 전시관을 만들고 싶었다는 최 동문. 그는 “박물관도 변

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이슈가 된다면 독도에 관한 특별전을 갖는 등 그때그때 시사성 있는 주제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지요”라며 그러한 점이 박물관의 역할이라고 꼽는다.

이에 대해 “예전 국립중앙박물관은 학예연구실에서 전시, 연구 모두를 총괄했어요. 그러다 보니 전시에는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이번에 별도로 전시팀이 생기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소 짓는다. 그는 현재 전시 중인 ‘박물관 60년사’에 대해서도 관객이 많은 관심을 보여 뿌듯하다고 덧붙인다.

“요즘 박물관에서 일하고 싶다는 학생들을 많이 봐요.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인만큼 학에서 시험 통과와 외국어도 필수지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적성에 맞고 우리 유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죠”라며 후배들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는 최웅천 동문. 그의 모습에서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열린’ 박물관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김경민 기자
nanakm@dongguk.edu

제6회 한·중·일 국제학술회의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전망

◆ 일시: 2005년 11월 25일(금) 14:00~17:30
 ◆ 장소: 동국대학교 동국관M동 행정대학원 첨단강의실

학술회의 일정

1. 개회식 14:00~14:20
 개최사: 강성운(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소장)
2. 주제발표 14:20~16:00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전망』
 ◇ 사 회: 박순성(동국대학교 북한학과)
 ◇ 제1발표: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김경일, 북경대)
 ◇ 제2발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 (한용섭, 국방대)
 ◇ 제3발표: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구라타 히데아, 일본국제문제연구소)
3. 토론 16:00~17:00
 ◇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 히라이 히사시(교토통신)
 ◇ 장재화(길림대 동북아연구원)
4.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00~17:30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100-715 서울 중구 필동 3가 26
 Tel : (02)2260-3506/3508
 Fax : (02)2275-2785
 e-mail : juntg1052@hanmail.net

능금(사과) 직거래 판매 행사

우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는 연세대 생협과 공동으로 질 좋은 우리 농산물(사과)을 산지에서 직접 공급·판매하는 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판매취지: 조합원들에게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저가에 제공하기 위한.
2. 판매기간: 2005. 11. 22(화)~11. 24(목) / 10시~15시
3. 판매장소: 상록원식당 앞
4. 생산지역: 경상북도 상주
5. 판매가격

상품 구분	박스 판매가 (15kg)	날개 판매가	비고
능금 특A	40개 미만	57,000원	-
A	41 ~ 50개	48,000원	1차
B	51 ~ 60개	43,000원	2개 2,000원
C	61 ~ 70개	35,000원	3개 2,000원
D	71 ~ 80개	30,000원	2개 1,000원

6. 예약판매 및 문의: 생협사무국(해화관 1층), 전화 예약 문의 (2260-8946)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동국대학교 기념품매장 입찰공고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는 교내 기념품 매장을 운영업체(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위탁 목적물: 동국대학교내 기념품점 매장(중앙도서관 B1)
2. 위치: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내
3. 입찰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05. 12. 1(목) 15:00 상록원 교직원 식당 VIP룸 (해화관 1층)
4. 입찰서류접수: 2005. 12. 9(금) 17:00까지 생협사무국 (해화관 1층)
5. 입찰일시 및 장소: 2005. 12. 12(월) 15:00 생협사무국 (해화관 1층)
6.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 나. 입찰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자)만 해당
 - 다. 상기 등급중 3년이상 운영업체(자)
7. 기타사항
 - 가. 입찰참가자는 본 조항 사업계획 및 평가방법 중 본 조항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에 소요되는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및 현지실사를 할 수도 있으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라. 입찰결과와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홈페이지 게시관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사무국 (02-2260-8950, 4)
 홈페이지 : http://dgucop.dongguk.ac.kr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동국대 각문직 동영상 시사회 DGU Power Live

장소: 중앙도서관 AN실

- ◆ 11월 22일(화) 오후 6시 : 'Guns'n roses' Tokyo live
- ◆ 11월 29일(화) 오후 6시 : 'Rush' Rock in Rio
- ◆ 12월 6일(화) 오후 6시 : 'Nirvana' Live & Loud
- ◆ 12월 13일(화) 오후 6시 : 'U2' Elevation 2001

피어리슨 정기공연: 11월 21일(월) 오후 6시: 학림관 소강당

주최: 동국대메디칼 조직위원회
주관: 락동아리 피어리슨 단

동국대학교 100년/불교학과 100년 2005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동문회 총회 겸 송년회 안내

창설 100주년을 맞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동문회와 2005년 총회 겸 송년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동문회에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05년 12월 5일 (월) 18:00
2. 장소: 소피텔 엠버서더호텔 그랜드볼룸
3. 참석 대상: 불교학과 서울 및 경주 캠퍼스 졸업생,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수료생
4. 참가비: 50,000원
5. 연락처: 02-2260-3835 (동국대 교수회관 120호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동문회공동회장
성 광·권오현 합장

서울시 문화정책은 '불도저'?!

규모·시각적 측면만 확장 ... 시민 목소리 부재해 비판 높아

'세계 일류 문화도시, 서울', 올해 서울시 문화시책의 목표이다. 2002년 시장 취임 이후,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복원사업을 시작으로 시청 앞 광장조성,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최, 서울문화재단 설립 등 전 영역에 걸쳐 '문화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얼마 전 인터뷰를 통해 남은 임기 동안 문화정책에 주력할 것이며 '문화시장'으로 남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10월 1일 청계천이 개장되면서 이명박 시장은 '문화시장'으로 자리매김한 듯 보이며 '문화도시, 서울'은 그 전망이 한층 밝아진 듯 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각 사업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 문화정책이 시민들의 문화욕구 및 문화향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채 대형시설 확충과 일회성 행사위주로 편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행정전반이 비민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문화연대는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 3년간의 서울시 문화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시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문화관련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삼아 서울시 문화정책의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해보고자 한다.

현재 서울시는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여러모로 이명박식 문화행정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신년 초 이명박 시장의 언론인터뷰

를 통해 처음 확인된 예술센터 건립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요구될 정도로 갖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부지를 매입하고, 노들섬 운백철거비용 2,9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슬쩍 편성하더니 곧 철거공사에 착수했을 뿐만 아니라 5,000억원에 달하는 기금 조예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명박식 행정의 '결정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전문가 대다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전문가 설문 에 응한 이 중 77%가 예술센터 건립이 필요치 않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시민들의 문화적 수요 및 문화향수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업'(51.9%)을 꼽았다. 한편 서울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시민대상의 공청회를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는 비단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사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 문화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규모와 정치적·시각적 효과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서

회에 필요한 문화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정치적·시각적 효과에 대한 집착은 시민의 의견수렴 없는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에 시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시민을 우선 고려하는 문화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다.

서울 한복판에 개장된 청계천 덕분에 이명박 시장은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을지 모르나 청계천에는 장애인도 없다. 서울시민인 장애인

의 보행권·문화권이 없고, 또한 청계천 상인의 생존권이 파묻혀버렸다. 그리고 문화재전문가, 환경전문가의 견해가 묵살됐다.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시민의 일상과 괴리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면 그러니까 현재와 같이 서울시 문화행정 전반에 '시민'이 없다면, '문화도시, 서울'은 허풍이다.

박 보 경
문화연대 문화개혁센터 활동가



일러스트=〈현〉

내가 좋아하는 문화예술인

인간 감정 집대성한 곡으로 타인과 교감하는 예술인



피아니스트
류이치 사카모토



고 재 현
사범대 교육1

예술은 사람의 이성보다는 감성을 자극하기 마련이다. 예술에 의해 자극받은 감성은 이성보다 훨씬 주관적이고 실존적이기에, 개개인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뿐더러 그 감정 또한 각기 다르다. 또한 예술은(특히 현대 예술은) 예술 그 자체로의 존재적 숭고를 느낄 수도 있다. 예술의 의미가 대상에 담겨 있다가보다는 존재 자체로의 압도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예술이라는 체계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는 '음악'이다. 본래 난 어떤 종류의 예술작품이든지 감상하고 있는 시간은 그 예술작품과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룬다.(물론 예술작품이 나에게 말하는 바는 나의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다.)

그러나 음악은 다른 종류의 예술작품보다 나의 감성을 더 자극한다. 이유는 확실하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시각보다 청각에 호소한다는 이유만은 아닐 것이다.

특히 난 피아노 음악을 좋아하기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문화예술인으로 일본의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류이치 사카모토'(이하 류이치)를 꼽을 수 있다.

모순적인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난 피아노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하지만 이런 식견에서라도 류이치의 음악은 다양한 피아노의 음을 사용하여 피아노라는 악기의 맛을 제대로 살렸다고 생각한다. 피아노라고 생각하면 암묵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아름답고 잔잔한 분위기일 것이다.

하지만 류이치는 이런 곡만이 아니고 저음을 사용한 우울한 분위기 또한 완벽하게 나타내었다. 때문에 그의 곡은 인간 감정의 모든 것을 집대성하여 표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즐거웁지만 아니라 우울한 기분, 긴장감, 두려움, 동상에 잠긴 기분 등의 다양한 감정들을 피아노 음악을 매개로 하여 잘 드러냈다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특히 그의 곡인 'rain'이나 'Merry Christmas MR.Lawrence'는 류이치식의 특유한 기법과 감정표현을 극명히 드러내고 있고, 그렇기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다.

피아노 건반 하나하나에는 인간의 감정이 숨겨져 있다. 그렇기에 피아노 곡 하나는 그 감정들의 집합체이다. 나의 내면화된 감정들을 피아노 소리에 이입시켜 뿜어져 나오게 할 때 나는 그 무엇보다도 큰 감동을 느끼게 된다. 류이치의 곡은 나의 숨겨진 감정과 피아노 건반 속 숨겨진 감정들을 일치시킴으로써 나에게 정서적 해방감을 안겨준다. 타인의 감정의 통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뛰어난 재능이다. 나의 감정의 통로는 류이치가 열어주었다. 이것이 내가 그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③ 가야금 연주하는 이동희 씨

“우리만의 소리 해외에 알리고 싶어요”



12줄의 청아한 소리로 2천년을 넘게 우리의 소리를 지켜온 가야금. 오동나무 공명반에 쪼인 12줄의 명주실에는 우리 조상의 애상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가야금 연주자는 이러한 우리전통의 소리를 이어가는 이들이다.

최근 가야금 연주곡 '천년송의 노래'가 담긴 음반을 발매해 세간의 관심을 모은 가야금 연주자 이동희(27)씨도 그 중 한명이다. 그를 만나 가야금의 매력과 국악의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가야금을 시작한 계기는.
= 어린 시절부터 판소리에 관심이 많아 자연스럽게 가야금을 만지게 됐다. 서양 악기에서는 찾을 수 없는 가야금만의 독특한 소리와 여성스러운 느낌이 좋았다.

그러던 중 가야금 연주자로 인간문화재에 지정된 양승희 선생님을 뵈게 되면서 본격적

으로 이 길을 걷게 됐다.

-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
= 작년에는 예고에서 가야금 수업을 하기도 했다. 올해는 음반 발매를 비롯해 지방병원 순회 가야금 연주회를 하며 가야금을 알리고 있다. 또한 소나무를 지키는 환경운동 차원에서 마련된 음악회 등에도 참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 국악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점이 있다면.
= 먼저 사람들이 국악을 '음악'이라는 큰 범주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국악이라고 하면 일단 어렵고 듣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판소리를 주제로 한 영화 '서편제'는 흥행했다. 이는 판소리의 매력 영화와 어우러져 잘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국악을 영화나 드라마 등과

연재기획 - 우리 문화를 찾는 젊은이들

우리 전통문화 각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만나본다

편집자

자연스럽게 연결해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교 수업 시간에 국악 프로를 보여준다는 대학에서 국악 교양수업을 더 많이 개설하는 등 생활에서 국악을 접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의 진로와 활동계획은.
= 일단 가야금을 비롯한 국악 전반에 대해 계속 공부하고 싶다. 나아가 사물놀이 같은 동적인 문화가 알려진 것처럼 우리의 정적인 문화도 해외에 알리고 싶다.
서구 사람들은 동양 문화라 하면 대부분 일본 문화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우리나라 음악의 아름다움을 해외에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싶다.

〈이〉

lee123@dongguk.edu

문화단신

중양노래매 '아리랑' 정기공연

제5회 서울 뉴미디어 페스티벌

학생 이끄는 참신한 시도

제5회 서울 뉴미디어 페스티벌(이하 네마프·NEMAF)이 오는 24일부터 6일간 홍익대 주변에서 열린다.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인디 정신의 상징이 된 홍대 앞 △태아프르 △썸시스페이스 △다빈치갤러리 등 15여 곳의 대안 공간에서 전시·상영된다. 행사는 사회 곳곳에 있는 소수의 이야기들을 왜곡·편파보도한 기존의 거대 미디어에 대항해 뉴미디어로서의 대안적 미디어를 지향한다.

네마프는 2000년 제1회 인디비디오 페스티벌로 시작해 류승완 감독 등 많은 비디오 작가, 미술작가 등을 양성했다.

독립영화 2편 극장 개봉

독립다큐멘터리 '안녕, 사요나라'와 독립 장편 영화 '다섯은 너무 많아'가 한국독립영화협회 배급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독립영화 극장 개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24일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다.

'안녕, 사요나라'는 한·일 감독이 공동으로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를 비판적 시각으로 조명한 영화다. 또한 '다섯은 너무 많아'는 혈연으로 묶인 가족의 가치를 정면으로 전복하는 블랙코미디다. 상영관은 △시네코아 △CGV강변 등이고, 관람등급은 각각 12세와 15세이다.

민중가요를 흔하게 들을 수 없는 오늘날, 그 낯설음은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이 '운동권 노래', '데모할 때 부르는 노래'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사실 민중가요는 우정·사랑 등 우리 생활에 가까운 것에서부터 사회문제까지 넓은 범위를 노래한다. 우리학교 중양노래매 아리랑은 이를 학생들에게 알리려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8일 화림관 소강당에서 열린 아리랑 가을 정기공연이 그것이다. '엄마의 일기'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헤이!! 아줌마 △언제까지나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뭐 등의 민중가요와 '마음을 다해 부르면' 등의 대중가요가 공연됐다. 아리랑의 최정환(경영2) 회장은 "많은 학생들이 흔히 노래매나 민중가요를 생각할 때 강한 운동권적 성향을 떠올린다"며 "이번 공연은 그러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학생들에게 친근한 '엄마'라는 소재로 주제를 잡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예전의 노래만 부르는 형식에서 벗어나 공연 전체를 하나의 극으로 만들어, 노래의 테마와 영상이야기를 어우러지게 해 참신했다는 평가다.

전체적인 내용은 딸이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한 뒤, 일기를 읽으며 엄마의 첫사랑과 결혼, 자신을 키우면서 느낀 엄마의 심정을 회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더욱이 실제 주인공을 연기한 회원의 어머니 사진으로 영상을 구성해 사실감을 살렸



다. 공연을 관람한 권상혁(국교1)은 "전에도 아리랑 공연을 봤는데, 이번에는 주제나 형식이 색달라 재밌었다"며 "마지막에는 어머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연 시작이 30분 정도 늦춰진 것은 미흡한 준비가 빛어낸 점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많은 동아리 행사들이 학생들의 발걸음이 줄어들면서 침체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이번 아리랑 공연과 같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참신한 구성의 행사가 늘어나 학내 동아리 공연이 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

niitake@dongguk.edu

미디어리

단절의 장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웹상에 게시판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인터넷상에 자신들의 생각을 글로 쓰고,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댓글을 다는 것을 생활화 하고 있다. 이제 인터넷 게시판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많은 명실공히 대표적인 여론의 장이 되었다. '넷심이 민심'이란 말이 생겨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학교에도 남 부럽지 않은(?) 여론의 장이 있다. 명칭도 이에 걸맞게 '나의 주장'이다. 요즘 나의 주장에는 총학생회 선거철을 맞아 하루 100여개가 넘는 글들이 올라온다. 학교나 학생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인터넷 게시판들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폐쇄되거나 몇 달 전에 쓰여진 글이 마지막 게시물이거나 대부분임을 감안해볼 때 나의 주장의 활성화는 분명 반가운 일이다.

▲인터넷 게시판 활성화로 인해 그동안 목소리 한번 크게 낼 수 없었던 사람들도 동등한 위치에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와 함께 나타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게시판은 걸핏하면 서로 간에 욕설이 오가고 근거없는 비방이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의견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단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의 주장에 올라오는 총학생회 선거 관련 글들은 대부분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론 가끔씩 각 후보의 공약을 평가한 글들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글들이 상식 이하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여론의 장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 못지 않게 남의 의견 또한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나의주장은 동국인들의 의사소통 단절을 초래하는 없느니만 못한 여론의 장이 될 것이다.

김지희 대학부장
gazababo@dongguk.edu

제대로 알고하자 - 국토대장정

도전 앞서 사전준비 철저해야

국토대장정은 젊은 학생들의 패기와 도전정신이 결합돼 있는 대표적인 활동이다. 학업으로 쌓인 스트레스와 나태한 자신을 이겨내고, 나아가 삶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자 해마다 국토대장정에 도전하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 기업과 기관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대장정을 개최해 이러한 흐름을 더욱 활발히 하고 있다. 그러나 패기만으로 도전했다가 준비가 부족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대장정을 완주하려면 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장정은 크게 국내대장정과 해외대장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국내대장정은 개인·동료·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떠나기도 하고,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후원으로 조직되기도 한다. 개인이나 소규모의 친목을 이용해 떠나는 경우 시간과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대장정을 할 수 있으며, 전국의 민심을 체험하기도 좋다는 장점을 가진다. 지난 여름방학에

홀로 해남 땅끝마을부터 강원도 통일전망대까지 국내대장정을 하고 돌아온 이종선(사회4) 양은 "맹목적인 해외여행보다는 먼저 우리나라를 아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에 국토대장정을 하게 됐다"며 "이번 체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이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조직된 국내대장정도 있다. 이러한 방법은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과 기업 입사 시 특혜를 받기도 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대장정을 할 때 유의할 점도 있다. 방학을 이용해 친구들과 자전거 국토대장정을 하고 돌아온 기경용(경제3) 군은 "자전거 고장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해 고생을 했고, 힘든 상황이기에 친구들과의 불화도 생길 수 있다"며 "항상 긍정적이며 예의 바른 태도를 갖고 대장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해 회원들과 함께 자전거 국토대장정을 하고 돌아온 장승근(전남대 경영2) 군은 "민간 신분이다 보니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등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며 "교통통제와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에서의 자전거 운행에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해외대장정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국내대장정처럼 개인이나 동료들과 함께 떠나

는 경우도 있고, 기업이나 관련기관의 후원을 받아 대장정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해외 대장정은 건문을 넓히고 해외의 문화와 기술 등을 접하며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지난 여름방학 기간에 한 언론사 주최로 열린 '대학생 기자단 중국 항일 유적탐방'에 참가한 이지현(숙명여대 국문2) 양은 "다 대학 학보사 기자들을 만나 정을 나누며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흔적과 항일 열사들의 애국심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최 측의 일정은 유적 관광 시간이 적은 반면 이동시간이 더 많아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학생들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정으로 탐방의 의미가 흐려지거나, 대학생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내실없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곳도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때문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장정과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를 진행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열한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낸 후 맛보는 쾌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다. 젊음이 있기에 도전할 수 있는 대장정, 아직 해보지 않았다면 이번 방학을 이용해 대장정을 떠나보자.

(O) lee123@dongguk.edu



일러스트=〈현〉

취업성공기

전공관련 자격증과 해외연수 도움돼

심보일
2004년 삼성전자 입사
정산대 컴공 04졸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면 취업준비를 하면서 힘들었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뒤늦게 토익시험과 학점관리, 자격증 취득으로 인해 졸업을 연기해야 했고, 100여 통이 넘는 원서접수를 통해서야 지금의 회사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힘든 여정만큼 원하던 회사에 합격하였을 때의 기쁨은 값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취업 과정에서 느꼈던 중요한 점 몇 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응시했던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소학점 3.0 정도였는데, 면접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3.2 이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점은 높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으로 2학기에 지원하는 만큼, 미리 미리 학점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 지원이 필수가 된 TOEIC과 전공관련 자격증은 기업마다 가산점을 부여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습득해 취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보처리기사와 Oracle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면접시에 Oracle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전공관련 자격증은 1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더욱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 외의 다양한 활동들은 면접시에 면접관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학교에서 지원하는 해외 IT 연수, 노동부 직업체험 프로그램, 컴퓨터강사 등의 활동들을 했는데, 면접시에 관련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범한 생활을 한 인재를 뽑을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부각시킬 만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신감과 부지런함입니다. 자기 자신의 잣대로 서류전형부터 포기하지 말기를 권합니다. 기업의 선발기준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서류전형은 지원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약 100여 곳 넘게 서류를 접수했지만, 하향 지원했던 곳에는 불합격하고 오히려 포기했던 곳에서 합격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중복 지원에 앞서 회사에 대한 정보인수는 필수입니다. 학교에서 열리는 취업설명회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면 할수록 실력이 향상되는 게 바로 면접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소개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제가, 여러 번의 면접을 거치면서 어느덧 돌발질문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까지 향상되었던 것은 무조건 면접에 참여했던 결과였습니다. 원하던 회사의 면접에서 떨지 않고 본인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기업의 면접일지라도 기회로 삼으십시오.

졸업연기까지 해 가며 얻은 이러한 저의 깨달음이 후배들의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면 종을 자격증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지난 97년 신설된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는 산업계의 각종 업무에 컴퓨터 디자인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격제도로 제정되게 됐다. 최초에는 실기시험에서 매킨토시 컴퓨터만을 이용하도록 돼있어 응시인원이 높지 않았으나, 곧 IBM PC로도 응시가 가능해짐으로써 현재는 IBM PC 응시 인원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검정시험은 필기에서 △산업디자인 △색채 및 도법 △디자인재료 △컴퓨터 그래픽스 등에 관한 이론적 상식을 검정한다.

또한 필기 합격자에 한해서 실기시험에 응

시할 수 있는데, 실기에서는 컴퓨터상에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페이지 메이커 (IBM) △리퀴드스프레스(매킨토시) 등을 이용해 △광고 △편집 △포장 △제품디자인 등의 시각 디자인 운용 작업을 하는 실제 작품 제작 능력을 평가한다.

응시자격의 제한은 없으며, 자격증을 취득하면 각 기업체의 디자인·홍보·기획, 신문 편집, 출판디자인 등 컴퓨터 디자인과 관련한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데에 유리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장하며 1년 동안 4회의 시험이 치러진다.

우리말 바로 알기

'가족' 과 '거죽'

우리는 흔히 '가족'과 '거죽'을 비슷한 의미로 '겉을 쓴 대상'을 말할 때 표기한다. 하지만 이 두 말은 구분해서 써야 한다.

'가족'은 '호랑이 가족'과 같이 '동물의 몸을 감싸고 있는 질긴 껍질'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가방', '가족구두'처럼 동물의 몸에서 벗겨 낸 껍질을 가공해서 만든 물건을 의미할 때도 쓸 수 있다.

반면 '거죽'은 '물체의 겉 부분'을 의미하는 말로 '책 거죽'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미숫가루'와 '미숫가루'

'미수'나 '미숫가루'는 예전에는 '미시' 또는 '미숫가루'를 표준어로 삼았던 말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미수'와 '미숫가루'로 발음하기 때문에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것이다. 표준어 규정 제11항을 살펴보면 '다음 몇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해,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로 표준어로 삼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 예로는 △상추(○), 상처(×) △깍쟁이(○), 깍정이(×) 등이 있다.

출처=우리말 배움터

통합검색 | 한주간 인기검색어

황우석-새튼 결별

황우석 교수팀과 줄기세포 연구를 함께 해왔던 제럴드 새튼 미 피츠버그 대학 교수가 지난 12일 난자 취득과정의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황우석 교수가 추진 중인 '세계 줄기세포 허브' 설립 프로젝트에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황우석 교수팀과 국내 연구자들은 새튼 박사의 불참선언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며 연구중단 여부에 대한 문제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난자매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난자매매 카페를 개설한 후 난자 판매를 알선해주고 알선료를 챙긴 브로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돼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들은 건당 300~400만원에 난자 판매를 알선한 후 알선료를 챙겼다. 이 밖에도 일본국적의 불법 여성 수백명을 상대로 한국 여성 난자 불법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혐의를 가진 브로커를 입건해 조사 중에 있어 논란이 일었다.

소리바다

지난 5년간 국내 MP3 음악 보급의 첨병 역할을 했던 '소리바다'의 개인 간 파일교환(P2P) 서비스가 7일 중지돼 네티즌들의 불만이 거셴다. 이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이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낸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내 MP3 음원시장의 유희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소리바다는 P2P 전면 유희화에 따른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MBC노출사건

지난 14일 MBC의 한 드라마 목욕탕 장면 중 남성 보조출연자의 음부가 약 1초간 노출돼 파문을 일으켰다. 처음 방송을 본 시청자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를 제보한 후 그날 새벽 제작진이 관련 사과문을 올리고, 이후 이러한 과정을 각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파문은 커져갔다.

이에 MBC는 생방송 음악프로 출연자의 성기노출 사건과 직관한 중국교통사고장면 방영사건 등에 이어 계속되는 방송사고에 대해 시청자들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신정환

연예인 신정환(31) 씨가 지난 10일 서울 압구정동의 한 카지노바를 급속한 검찰에 연행돼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아 네티즌들의 논란이 됐다. 그는 처음에는 도박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 하루 만에 판문 수백만 원을 걸고 도박을 했다고 시인했다. 따라서 그가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는 그를 출연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리=문화부
출처=네이버, 엠피스



지혜와 자비로 키워낸 이십만 인재가
새로운 100년의
'두드림'을 시작한다!

미래의 꿈과 희망을 향한
가슴 벅찬 '두드림 Do Dream!'
민족과 함께 달려온 동국대학교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큰 울림을 온 누리에 알립니다.

동국의 울림-VISION 선포식
• 2005년 11월 23일(수) 18:30-21:00
• 신라호텔 다이내스티 홀

Do Dream!